

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6월 14일 주일예배 설교입니다.

< 주님이 주신 자유 >

갈라디아서 5:1 / 새찬송가 272 (통일 330)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1. 죄가 용서받고 정죄가 사라지고 질병이 고침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모든 구원과 축복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바로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18년 동안 귀신들려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을 안식일에 고치시면서 그 여인을 매임에서 푸는 것이 즉 자유를 주는 것이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눅 13:16).

이처럼 자유란 매임에서 우리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것’은 죄의 유혹, 정죄, 불안, 두려움, 질병, 문제, 사망, 지옥으로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를 얽어맵니다.

사실 인류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 끊임없이 모든 형태의 악(죄와 정죄함, 질병과 가난과 저주, 압제와 억압, 자연재해, 절망의 죽음, 무의미와 허무)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모든 형태의 선(지식의 발전과 팽창, 우리의 삶을 운택하게 하는 각종 건축과 문명 이기의 발명, 치료와 건강을 위한 모든 의학 적 발견과 노력들, 그리고 모든 예술적 활동과 작품들)을 추구하는 노력도 역시 자유를 얻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의나 지식이나 수단이나 방법과 노력으로는 결코 그토록 원하는 ‘자유’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인간에게는 오로지 타락 전 에덴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던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유를 상실하였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자유를 되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비극이요 슬픔입니다.

2.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자유를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갈 5:1).

누가복음 4장 18,19절을 보면 ‘자유’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놀린 데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포로 된 상태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눅 4:18,19).

만약 우리가 마귀와 귀신들에게 포로로 잡혀 있고 정욕과 탐욕과 이생의 자람에 잡혀 있으면 우리는 눌린 상태가 됩니다. 원지 모르지만 마음이 항상 답답하고 눌러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눌린 상태에 빠진 우리를 위해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각종 정욕과 탐욕과 이생의 자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도록 해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는 방랑이나 방황이 아닙니다. 방황이란 구속되거나 눌린 상태는 아니지만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란 오직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우리가 나아갈 목표를 분명히 보여주는 자유입니다.

또 주님이 주시는 자유란 우리 스스로 그 무엇을 선택하게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 선택의 자유로 인류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는 무엇이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포기하고 인생의 나아갈 길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시 37:5,6). 주님께 내 길을 맡김으로써 주님이 나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해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란 사랑하는 주님과 관계에서 서로 사랑에 매이게 하는 자유입니다. 이는 나 홀로 있는 자유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과 매이는 행복을 향한 자유인 것입니다(요 15:4,5).

< 적용 & 실천 >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즉 일상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는 자유,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선택하여 누리고 있습니까?